

‘펫 관광 시대’ 순천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 ‘주목’

문화센터·놀이터·진료소 등 인프라 구축 그린바이오 전략 품목 ‘펫푸드’ 산업 육성

1인 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 곳곳에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공공진료소가 결합

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3월에는 인근에 실외놀이터가 문을 열면서 총 3개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용객은 2023년 6천100여명에서 2024년 1만명까지 약 63%가 증가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천4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이 공공진료소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진료 대상을 유기동물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까지 넓히고 전국 최초로 일요일 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순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도 각광받고 있다.

순천시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주요 관광지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편리한 관광을 도왔다. 이 시설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반려동물과 국가정원 일대를 산책하는 시민들로부터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행사도 다양하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으로 그린아일랜드’와 더불어 댕댕나이트런, 반려동물 문화한마당 등 시민은 물론 순천을 방문한 여행객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올해에는 코레일과 협력해 전남 최초로 반려견 전용 열차 여행 상품 ‘순천 댕댕 트레인’을 선보였고, 이와 연계해 그간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했던 순천만국가정원에 하루 동안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펫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순천시는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공식 지정되기도 했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의 그린바이오 전략 품목

중 하나로 펫푸드 산업을 선정했다. 반려친화 정책, 관광 콘텐츠, 체험과 연계해 산업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순천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은 다양한 시민이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 콘텐츠 개발, 산업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가족의 일원”이라며 “자연과 사람,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기자

장성군, 본격 장마 대비 주민피해 ‘최소화’

건설현장·저지대 등 안전 실태 조사 배수펌프장 시설 점검…피해 발생 ‘0’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장성군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20·21일 선제적인 비 피해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이인섭 건설농정국장 주재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부서별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 점검에선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 방지 ▲낙석 대비 ▲하천변 공인 안전실태 확인 등에 중점을 뒀다. 앞선 13·16일 많은 비가 내린 후 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성군은 지역 내 건설현장의 재해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지하주차장과 저지대는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요양·장애인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관리실태도 확인했다.

빗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우수관, 배수구, 배수로 점검도 추진했다. 장성읍·황룡면의 배수를 책임지고 있는 ‘장성배수펌프장’은 전반적인 일찌감치 시설 점검과 사전 모의훈련을 마쳤다. 시간당 최대 3만2천600의 빗물을 배출할 수 있어읍시까지 일대비 피해를 막아준다.

지난 21일 오전 4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자, 장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13개 협업부서도 즉시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 발령에는 위험지역 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초동대처에 나섰다. 대피 주민에게는 음식 등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꾸러미’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신경썼다.

김한중 장성군수도 지역 내 호우 취약지역을 직접 확인하고 군의 재난·재해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일에는 장성배수펌프장을 찾아 빈틈 없는 대처를 주문했다.

김한중 군수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언제든 기습 폭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 지역 아파트 고독사 예방·취약계층 관리 ‘눈길’

관리사무소 앞장서 위기가구 발굴 복지관 협약 체결 등 주민 연계 활동

여수지역 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장애인과 홀로 사는 고령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아파트는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LH 죽림휴먼시아1단지.

23일 여수지역 등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건립된 아 아파트 830세대 중 약 200세대가 기초수급자나 기초주거지원 대상자, 장애인 세대다. 또 전체 입주세대 중 절반 정도는 홀로 사는 세대다.

그러다보니 이 아파트에서는 종종 고독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도 발생한다.

이웃과의 단절을 막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 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는 소라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소라종합사회복지관의 강사 지원을 통해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강사들의 지도에 따라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체조(사진)를 배우고, 자연식물 그리기 또는 양말목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공동체 속에 녹아들고 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서예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정광민 센터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입주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관계가 개선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며 “입주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죽림휴먼시아1단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에서 파견되는 강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직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야생화나 다육이 기르기, 친환경 세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광민 센터장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이지만,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우리단지 이웃 살피미’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기관과 연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생활실천그린공동주택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2023년에는 LH주거행복지원서비스품질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수=김전선 기자



담양군이 최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장성군, 관광 활성화 협약

교류 관광 이벤트…관광 체류 시간 확대

담양군이 장성군과 손잡고 교류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청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 관광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담양군과 장성군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철원 담양군수는 상호 우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장성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두 지자체는 관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류 관광 이벤트를 각각 추진한다.

담양군은 ‘담장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 장성군은 ‘go!go! 쏠쏠한 여행 장담할게’ 교류 관광 이벤트를 각 지자체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와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담양군에서는 장성군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담양군 관내 식당 또는 카페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1인 1회에 한해 담양군 관광정보센터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역시 담양군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하고 장성군 내 지정된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경우, 장성역 여행자플랫폼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의 지정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랜드,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 담양호 용마루길, 소쇄원, 한국사문화관, 금성산성이며, 장성군은 백양사, 축령산 편백숲, 장성호 관광단지, 홍길동 테마파크, 필암서원, 황룡강 정원, 상무평화공원, 평립담 장미공원 등을 지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협약은 두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판 전달

총 64개소 운영…소상공인 상생 도모

구례군은 “최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연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 카드를 소지한 봉사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로, 구례군과 협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다.

현판 전달식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할인가맹점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구례군에는 총 64개소의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준 가맹점주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보성군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보성군은 “최근 대전시 K-water 인제개발원 4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성군은 그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상수관 교체와 불룩시스템 구축해 유수율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럼은 ‘물관리 선진화 기술 및 물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적용 기술 우수 사례, 해외시장 진출성과 공유, 물 시장 진출 신규 기술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흥 ‘일자리종합안내센터’ 개소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고용 관련 서비스 원스톱 제공

장흥군은 23일 “지난 20일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종합안내센터는 전남도 지역산업발전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축된 것으로, 도·군·(재)전남인력개발원이 협약을 맺고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통합 고용서비스 거점이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구직자 상담 ▲직업훈련 연계 ▲기업 채용정보 제공 ▲고용정책 안내 등 고용 관련 서

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판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흥군의회 의원, (재)전남인력개발원 관계자, 지역 산업단지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시설관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

장흥군은 특히 센터를 통해 장흥바이오산업단지, 장흥·장평농공단지 등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와 지역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이번 센터 개소는 군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실질적인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일자리 창구’의 시작”이라며 “고용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